

가물극복의 방도를 밝혀주시는 불멸할 령도

벽성군의 백운땅이 전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

으로부터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하늘의 조화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었다.

그러나 속심한 가물과 교원현상이 지속되고있는 오늘 이 땅에서는 모든 력량을 가물과의 투쟁으로 부른 당의 력량을 높이 받들고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오른 나라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해 주라적전쟁사 전례없는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지속되는 가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올해에 기어이 대풍을 안아올 드높은 절기에 충만되어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바나에는 나라의 농사일때문에 그토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몸소 로전까지 걸으시면서 가물을 이겨낼 방도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인민들이 잘살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까지 농사일을 두고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남긴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그 얼마나 귀한가.

가물때에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 어버이수령님의 이 뜻깊은 교사와 더불어 벽성군 백운땅사람들이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잊지 못하는 사연도 그 수많은 이야기들중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이룩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주제 46(1957)년 6월 벽성군 백운리를 찾으신 가물극복의 중요한 방도는 땅속물을 찾아내는것이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이곳 농민들은 지독한 가물을 이겨냈으며 해마다 알뜰생산에서 장훈을 불려오고있다.

하지만 백운리의 농사일을 두고는 마음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로부터 몇해후 8월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꾼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고나서 허리에 손을 짚고서 목욕이 우겨진 산밭과 비석 물결치는 다락들들을 이룩도록 바라보시다가 벽성군이 참 좋은 곳이라고 정답어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 전언에 오셨을 때와 달리 작황이 좋은 논밭들이 보여 드리게 되면서 너무나 기뻐 이곳 사람들의 마음도 즐거웠다. 그이께서 가물로 괴로워하던 땅에 생명을 찾아주시신 공저기의 다락들에는 비석들이 탐스럽게 고개를 숙이었고 구수한 낱알향이 물씬 풍린 풍겨오고있었던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 수령님 아니시었다면 어떻게 이런 호젓한 광경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동안 동무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오히려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을 칭찬하시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물이요.

모를 언제 냈는가, 무슨 증자를 심었는가, 물은 모자라지 않는가. ...

은 농장원이 한해지도록 땅속을 훑어 다니며 대답을 만족스럽게 고개기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도하고 글로도 하고 우물도 썼던 말이 지, 잘했소, 잘했소라고 거듭 평가하시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맑은 물이 출렁이는 보폭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보물 막아 물문제를 푼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지극히 대한 과학이 있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땅속물을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 농장에서 땅속물을 리용하여 농사를 안전하게 짓도록 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계셨던 것이다.

자, 보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이 동무들이 그전에는 하늘신세만 지려고 하였거든. ...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하지만 그이를 우러르는 농장일꾼들의 눈굽은 뜨거워졌다. 나라의 농사일때문에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승고한 뜻과 끝없는 헌신의 로고가 가슴가득 미처 왔던 것이다.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땅속물을 뽑는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적합한 공저기의 다락들에는 비석들이 탐스럽게 고개를 숙이었고 구수한 낱알향이 물씬 풍린 풍겨오고있었던 것이다.

은 나라이에 가면 가물피해도 이겨낼 수 있는 수리화재의 세 역사를 펼쳐 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씨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어서 이렇듯 하늘을 믿을것 아니라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농사를 잘 지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 주시셨던 것이다.

백운리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그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다음해 여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 다시 농장을 찾으시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2모작농사를 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주제 65(1976)년 여름 어느날에는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달려온 승용차를 멈추시고 농장에서 파놓은 굴포까지

보이주시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어 물이 칠칠 흘러넘치는 굴포를 못내 만족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망도 곡식도 타들어가면 이 고장을 찾으시어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속 물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던 잊지 못할 그날을 생각하시는 가수업인이 흐르는 물줄기를 이 온 나라의 논과 밭을 적시는 호젓한 광경을 그려보시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굴포와 벼바다 설레이는 농장별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를 눈물속에 바래우며 농장원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로 농사를 잘 지어 해마다 풍요한 작황을 이룩하겠습니다.)

하나 백운땅의 농사일을 두고 놀 마음씨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상 가후현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농사를 망치고 무서운 실랑이로 아우성치던 엄혹한 시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를 마련하시고 지하수 혁명방향을 선포하시어 전당, 전군, 전산목포수령의 돌과구를 열어놓으셨을 것으로 믿고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업발전의 사회주의호전의 주라적 위업을 위해 농민들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고무된 농장원들은 곳곳에 양수시설을 갖추고 산동성까지 물을 끌어올려 물관식관수제제를 만들어 농업생산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가물극복을 이겨내고 농사를 잘 짓도록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헌신의 자욱이 어찌 이백운땅에만 새겨져있었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땅우에 풍요한 가물을 안아오시기 위해 온 나라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달려온 승용차를 멈추시고 농장에서 파놓은 굴포까지

찾으신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발판수문제로 마옵시였다. 그리고 다른 농장을 찾으시고는 옷이 화려하니 벗어내고 신발에 흙탕물이 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오대도록 관수시설을 보아 주시던 모든 농장들에서 이미 있는 관수시설들을 더 잘 정비보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전정인민들의 먹는 문제, 농사문제를 모든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 놓으시고 한평생을 농장별에 계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이 백운땅사람들만이 아닌 이 나라 누구의나 심장속에 스승하 간직되어있기에 지금 이 시각도 가물피해를 가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넋대로 기어이 이 땅우에 풍요한 가물을 안아올 드높은 열의로 사회주의협동법이 들끓고있는 것이다.

그렇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는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이기 전에 수령의 유훈판철전이며 당정책위행전, 사회주의호전이다.

현실은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가물피해를 철저히 극복하고 올해 알뜰생산목표수령의 돌과구를 열어놓으셨을 것으로 믿고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업발전의 사회주의호전의 주라적 위업을 위해 농민들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비상한 각오와 결사의 의지로 총동원된 대풍을 이겨내고는 어떤 왕가도 대풍을 추지 못하는 법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승고한 뜻 받들어 가물과의 전투에서도 승전고를 높이 울리고 올해 알뜰곡지를 기어이 정량한 기쁨으로 만리만리군자대회를 멋있게 열어젖어 온 나라 농민들과 인민들의 불타는 열정인양 사회주의전야는 새창개 뚫고있다.

본사기자 백 영 III

은 나라 협동법이 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으로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당의 전무적요소를 높이 받들고 가물과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인 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 때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왕가물을 이겨내고 대풍을 안아올 수있던것의 이야기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시기 농사제일주의방향을 내뿜으시고 전당, 전민, 전군이 달려들어 농사를 짓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주제 57(1968)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조분부터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났다.

보기 드문 흑심한 왕가물이 들었던 것이다.

그후에는 농업의 모든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사정없이 내려오는 불볕은 온 나라의 농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협하게 만들어 놓았다.

일부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비가 좀 내렸으면 하고 안락하히 바닷길만 무심한 하늘에서는 불볕만 쏟아내려왔다.

누구나 파던 농사를 어떻게 지을것인가를 근심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각 도직역 일꾼들을 부르시고 비상협의회를 여시였다.

당시 협의회참가자들은 난관 극복방도를 어떻게 하든 안하는 어쩔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있었다.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은

인간을 정복하지 못한다. 인간은 반드시 자연을 정복하여 화를 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왕가물과 싸워야 한다. 그 승리는 수지에 남는것이 아니다. 천수답에는 지쳐수령을 뒤흔치고 개비탈을 파면 물이 있기때문에 하지전으로 모내기를 끝내면 된다. 천수답에는 예비모를 길렀다가 비가 온 다음에 모내기를 하라. 밭부식에는 비로 물러 버리고 밭을 매면 꼭 가물복합이 된다고 하시며 왕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여 일꾼들은 눈앞이 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방도는 일꾼들은 물론 한사람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평안군의 명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온 나라에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왕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힘찬 투쟁이 과감히 벌어져있으며 그 결과 가을에 전례없는 풍작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그때의 일을 두고 흑심한 왕가물속에서도 농사를 잘 지었다고, 우리 나라에서 농사가 가장 잘된 것은 1968년이라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왕가물을 이겨내고 마른한 대풍을, 이것은 언제나 농사는 천지대변이 되며 농업생산의 결정적 전환을 위한 자연과의 투쟁으로 온 나라를 산악같이 불타오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었다.

본사기자 강 원 남

화를 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상협의회를 열어

미루별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시어



농업발전의 길에 씀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 있는 참관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스웨리에 왕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6월 26일발 조선 동지는 26일 만수대의사당 담화를 하였다. 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보로트케 주조 스웨리에 외무성 부상이 참가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왕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었다.

불멸의 화폭이 뜨거운 추억을 부르는 천만군민을 격동시킨다

산동리부위에서 달아오른 씨창을 울리고 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을 향해 대어섯들의 적들이 무성한 갈밭에 몸을 숨기고 기어올랐었다. 적들의 총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 계시는 곳을 향해있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바속을 헤쳐서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떤 고통한 순간을 당해보시기는 처음이었다.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순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명관주지!》하고 다급히 웨치며 반격할 기회를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온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시어 간강하게 수위를 살피시던 백두산녀장께서 수령님을 막으시며 편속방아쇠를 당기시였다.

주제 29(1940)년 6월 하순 대사하직전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인성을 지켜드리었다는 무한한 행복감과 안도감으로 흘러넘치는 눈물을 곁잡지 못하시던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으로 막으려고 김정숙동지께서 달려가신 걸음은 불꽃과 번갯불이었다. 그이께서 적들을 끌어안는 순간은 불과 맞닿았다. 하지만 그 걸음, 그 순간은 조선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구한 위대한 자욱이 되고 가장 영웅적위훈이 창조된 영원한 순간이었다.

한몸이 그대로 성체, 방패가 되시어 혁명의 사명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신 전설적위장군,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호위.

여기에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한생애 대한 력사의 청승이 있으며 바로

미루별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시어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루별 농민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리라고는 소식이 퍼졌을 때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참으로 컸다.

그도그렇듯이 누구라 할것없이 미루별의 그 그리고 지겨웠던 력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있기때문이었다.

으로부터 미루별은 땅이 척박하고 비바람까지 세차 불모의 땅, 사람 못살 고장으로 알려졌었다. 피폐한 자연후조건으로 하여 한해농사를 짓고나면 종자도 변변히 전지기 힘들었다.

그러시던 이듬마저도 사람이 많이 살모였는 땅으로 에 미루어놓았다 하여 《미루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던 미루별에 천지개혁의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기본문제인 하나이다. 농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천기이다.》

주제 94(2005)년 9월

않으면 안되었던 미루별이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미루별에는 수리화재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미루별농민들은 물 걱정을 모르고는 농사까지 마음껏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이르러 전기부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난관들로 하여 이 관계는 웅대한 높이에서 운영되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실태를 두고 가슴아파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그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대규모의 자연호프식물길공사를 발기하시였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든 미루별을 영원히 물결정음으로 보존하며, 행복의 땅으로 전성시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이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연호프식물길공사를 진행하는데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열심이 가르치심을 주시고 축성에서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이제 날

항일혈전사가 새긴 진리-수령결사옹위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여기에 백두산녀장께서 지니고계신 가장 값있는 인성판의 핵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 바치신 어머니의 충실성은 절대적인 신념이었고 승고한 도덕이었고 일상적인 생활이었고 어머니의 한생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위대 한 헌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이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신 김정숙동지의 절대 불변의 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고 인제 어디서나 오직 김일성장군님을 믿고 싸우겠다고 할부를 삼아도, 천년을 살아도 영원히 그의 혁명전사담에 멋있게 살며 언제 투쟁하겠다고 뜨거운 심장의 맹세를 다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순간순간 그날의 맹세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순간의 영웅적위훈은 우연히 이룩되는것이 아니다.

희의 순간순간 불같은 헌신으로 심장을 불타고 온몸을 강고리 바치는 열렬한 혁명가, 참된 투사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혁명전사들의 피가 스며있고 인민들의 조국방복부담이 이리여 있는 이 총을 잡고 김일성장군님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총 한방울을 뱉자마자 알고 있으며 이 총알 한방울을 백발로 알고 원수를 쏘겠습니다.》

가장 존엄한 항일혈전의 나날 수천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시어 민족부흥의 행복인 수령복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김정숙동지의 업적은 진정 얼마나 위대한것이었나.

주제 98(2009)년 2월 력사의 땅 평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산택에 높이 모신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바라보시며 뜨겁게 하고 계시는 그날의 한생을 회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바속을 헤쳐서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떤 고통한 순간을 당해보시기는 처음이었다.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순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명관주지!》하고 다급히 웨치며 반격할 기회를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온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시어 간강하게 수위를 살피시던 백두산녀장께서 수령님을 막으시며 편속방아쇠를 당기시였다.

주제 29(1940)년 6월 하순 대사하직전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인성을 지켜드리었다는 무한한 행복감과 안도감으로 흘러넘치는 눈물을 곁잡지 못하시던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으로 막으려고 김정숙동지께서 달려가신 걸음은 불꽃과 번갯불이었다. 그이께서 적들을 끌어안는 순간은 불과 맞닿았다. 하지만 그 걸음, 그 순간은 조선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구한 위대한 자욱이 되고 가장 영웅적위훈이 창조된 영원한 순간이었다.

한몸이 그대로 성체, 방패가 되시어 혁명의 사명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신 전설적위장군,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호위.

여기에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한생애 대한 력사의 청승이 있으며 바로

인간의 정신력은 하늘을 이긴다, 가물과의 전투를 계속 힘차게!

오늘 가물피해막이전투의 승패는 대 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오늘 가물피해막이전투의 승패는 대 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총동원된 속에 편입 혁신의 새 소식이 전 해지고있다. 날에날마다 이룩되고있는 전 투성과들은 인간의 정신력이 하늘을 이긴 다는 진리를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당의 로소에 화답하여 군민단결의 위력,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엄혹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 기적적인 승리를 안 아오고있는 이 벅찬 현실은 대중의 정

신력이 발달될 때 정령 못할 요새와 풀 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천만군민의 심장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진보도반

강령군에서 메년에 없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함없는 공격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 승리는 당의 전투력소수를 높이 받들고 화를 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열에서 내달리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질을 따라 배워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가물피해막이전투를 완강하게 벌려나가고있는 이 당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보세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하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을 바탕으로 투쟁기질이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일군들의 결심태도가 중요하다. 일군들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포로되어 부당한 난관을 뚫고나갈 생각을 못한다면 그 단원 사업은 주저앉게 된다. 하지만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열에서 내달리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에서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력방향입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때 대한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제5작업반포진의 고강관수제를 더욱 빈틈없이 완비하고 수천m 자연호복식물결의 정리, 백여m의 물을 잡을 수 있는 골포를 새로 파고 양수동력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전투...

더우기 눈길을 끄는 것은 배상식분무기를 메고 논바닥에서 일던 밧보리주기를 하고있는 농장원들의 땀에 젖은 모습들이다.

이들이 바로 가물피해막이전투의 시작과 함께 배수설비로 조직되어 맹활약하고있는 분무기조성원들이다.

강령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책임일군의 이 말은 그 어느 천백마디의 말보다 모두의 심장을 새차게 두드렸다.

참가자를모두가 적극 호응해나섰다. 강령기를 돌려서라도, 땅속의 물을 다 퍼내서라도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

군일군들은 짧은 기간에 물결 건설을 해제할 높은 전투목표를 세우고 공사에 필요한 실비와 자재를 선형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런 때 혁명적근거정신의 창조자이던 인민군인들이 전투 결사의 각오로 떨쳐나선 인민군인들과 농장원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군민의 단합된 힘이 있는 한 풀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오늘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뼈에 새겨준다 한 날이었다.

이를 계기로 대중의 정신력이 무척 흥분되는 속에 2.7km 나 되는 물결확장공사도 단 며칠동안에 끝났고 있다.

군일군들은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가물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에서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력방향입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때 대한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제5작업반포진의 고강관수제를 더욱 빈틈없이 완비하고 수천m 자연호복식물결의 정리, 백여m의 물을 잡을 수 있는 골포를 새로 파고 양수동력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전투...

더우기 눈길을 끄는 것은 배상식분무기를 메고 논바닥에서 일던 밧보리주기를 하고있는 농장원들의 땀에 젖은 모습들이다.

이들이 바로 가물피해막이전투의 시작과 함께 배수설비로 조직되어 맹활약하고있는 분무기조성원들이다.

철산군에서

철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호소를 받아안은 즉시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현재 많은 면적의 조건에서 가물피해를 막았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 불철저함을 비롯한 극과극한 불합리를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일과생산목표를 넘어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물피해막이전투로 낫과 밭이 이어지고있는 철산군안의 협동농장들은 그야말로 대격전장을 방불케 한다. 그 어느 농장, 그 어느 포진에서나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가물과의 투쟁은 당중앙위전이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이라는 비상한 자각, 당정책관철에서 한결같은 물리성수 없다는 결사의 정신력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니도

침입식정치사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의 일보세를 안배치되던 우리에게 절망 안보소도 줄

주도세밀한 작전으로 맞은 새날

가물과의 전투에 역량을 총집중할때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걸친 날 서흥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잠들 줄 몰랐다. 온밤을 주도세밀한 작전으로 지새웠다.

군당위원장 주성철동무는 군안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을 대상으로 가물피해막이와 관련한 당의 방침을 지세없이 전달하고 모든 격투가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포지시업을 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통하여 군안의 당조직들이 당의 구상과 결정을 다그치는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는 초소리라는 당조직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게 대하여 강조한 그는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 군협동농장정령위원회와 농장들을 담당한 일군들과 마담이었다.

회의에서는 대중을 가물피해막이전투에 힘있게 불리

서흥군 당위원회에서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위반사회주의책들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물은 개성시 협동농장의 농사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며, 강변이 등 농작물이 자라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있다. 근 한달동안 안연제 면천원화비가 내린적이 없다. 이미 있던 골포의 물이 줄어들고 하천에 흐르던 물도 거의 말라 포진에 댄수 있는 물원천이 결정적으로 부족해 있다.

하지만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막심하지 않았다.

능력이크 양수장을 새로 건설

은 나라가 가물과의 전투 부글부글 끓고있는 속에 평원군에서 능력이 큰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였다.

이번에 진행되는 양수장건설은 숙원공로로 흐르는 물을 산으로 통과시켜 수백정보의 논밭에 물을 보충하여 하는 아름다운 공사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고 산악악이 일떠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역자각의 위력으로 방대한 공사과제를 불과 7일동안에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나게 됨으로써 양수장건설을 비롯한 군안의 수백정보의 논밭에 생명을 충분히 보낼수 있게 되었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리만큼 한마음한 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매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질입니다.》

메년에 없는 왕가물로 양수장수지를 비롯하여 군안의 여러 지수자들이 바닷까지 드러나 포진에 물을 대줄수 없었다. 결국 군안의 수백정보의 논밭들이 가물피해를 받고있었다.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군악일군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를 능력이 큰 양수장건설로 내세웠다.

하천과 골포를 적극 이용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위반사회주의책들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물은 개성시 협동농장의 농사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며, 강변이 등 농작물이 자라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있다. 근 한달동안 안연제 면천원화비가 내린적이 없다. 이미 있던 골포의 물이 줄어들고 하천에 흐르던 물도 거의 말라 포진에 댄수 있는 물원천이 결정적으로 부족해 있다.

하지만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막심하지 않았다.

평원군에서

화를 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 각오로 뼈에 새기고 양수장건설에 나간 책임일군들은 현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 오래전에 건설한 물결굴과 물결을 리용하면 얼마든지 개천-대정호의 물을 이 포진들에 대줄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예로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끝내자면 철관만 해도 수십이나 들어야 하였고 양수기와 전동기들을 새로 설치해야 하였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의 제기를 적극 지지하고 필요한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물과의 전투는 단순한 물보충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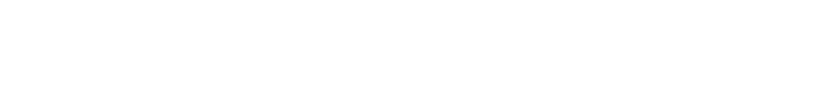
이 지극되는데 맞게 비배판리를 짜고들고있다. 왕가물이 들었던 몇해전

의 교훈이 일군들을 더욱 각성시켰던것이다. 그것은 후처질을 하거나 김대기를 하면서 흙을 끌어준 강변포진은 확실히 다른 조건에 비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원인은 후처질을 하거나 흙을 끌어주면 토양의 실질량이 줄어들기때문에 땅속의 물기증발이 일정하게 억제되어 곡식들이 가물을 덜 앓았던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은 좀 줄어도 적은 물을 가지고 가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하여 논바닥을 끌어주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장은 총정신과 애국심을 검증받는 마당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농장원들과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한포기한포기라도 미흡하고 패고 못한데로 국가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전음도 같이할 불같은 총정의 마음으로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 지원자들은 그날을 혁명적, 투쟁정신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와 물 확보전투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를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위력한 건설부대, 공로있는 집단의 영예 떨치며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황해북도려단 일군들과 건설자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거점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조직되어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의 첫발을 뚫은 우리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황해북도려단의 건설자들은 참으로 면밀하게 준비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조국 땅의 모든 곳마다 땅을 뿌리고 사신을 물으며 고귀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또다시 새 건설장을 향해 걸은 길 얼마이던가.

혁명사적지건설부대, 이 성스런 부름을 들은 영예로 여기며 창원 삶의 자욱을 새겨온 려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다.

오늘도 려단의 일군들은 지난해 려명거리리구역의 어느 한 대상 풍사를 맞이하던 때를 잊지 못해 추억하고있다. 종전의 건축물에서 육중한 화강석들을 해체하고 어제의 기단을 다시 형성해야 하는 공사는 어렵거늘도, 하지만 려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가슴속에는 천년만무도 단숨에 녹일 열정으로 새창에 담겨 있었다.

바로 얼마전 창원 40톤을 맞으며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건설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한없는 격정속에 받아들인 그날이었다.

혁명사적지건설부대에 내세워진 믿음만도 끈기있게만 자기

들의 위훈과 남모르는 헌신을 구절구절에 담아 축하문을 보내 준 당의 은정이 그들모두의 가슴에 충정의 불, 혁신의 불을 더욱 세차게 지펴주었다.

조국, 인민이 우리를 지켜본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에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이 기초가 되고 기단이 된 기념비적건축물을 훌륭히 일떠세우자.

역수로 퍼붓는 폭우속에서 사실 용접은 물론 돌가공작업도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려단장으로부터 마지막전투원에게 이르러 가지 그 누구에게서도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론의는 애당초 없었다.

용접공들의 머리우에, 돌가공이 진행되는 작업장에 일시에 비웃음이 펼쳐졌다. 그 《우산》아래서 낮에 밤을 이어 용접불꽃이 날리고 돌가공의 동음이 높이 울려나왔다. 이렇게 일떠세운 창조물 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 려명거리리공공예품을 꼭오실 때 그들의 걱정이 얼마이던가.

조선혁명박물관개건공사때에 이들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건설공사를 맡겨준 당의 믿음에 가슴뛰며 불꽃위는 건설 전투를 벌여나갔다.

대오의 앞장에는 기총심, 림총심등 부를 비롯한 려단일군들이 서있었다.

건설자들과 어울려 걸으며 손을 놀리기도 하고 화선식적지사업으로 대충의 심장에 불을 달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은 주체사상과 개건문건건설에서 위훈을 떨치던 어제의 려단장

대지휘관들의 열정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개건공사의 전기간 전투사적 전 첫 일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하고 주변관리사 업무를 진행한 그들에게는 전투의 하루하루, 분분초초가 그대로 당에 바치는 깨끗한 충정이고 향심이었다.

몇달전 깊은 밤 고요가 깃든 공사장으로 한대오가 들어섰다. 금방 작업을 끝내고 철수하였던 2대대의 건설자들이었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사원을 묻는 려단장에게서도 대대장 오르준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보도 작업위기가 절정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밤에라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사장을 돌아보시러 나오실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려단장의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와 배두에서 개혁된 조선 혁명을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의지를 안고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을 찾기도 했을 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알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깨끗하고 뜨거운 충정이 그들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었다.

구지골의 오솔길을 걸으며 39년

양덕은 온하리 구지골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15리가 넘는 좁고 험한 오솔길이 있다.

황금산의 새 역사를 불러온 신산속의 오솔길에 새겨진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전하며 단발머리치녀시절부터 39년간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녀성이 있다.

그가 바로 온하혁명사적지관리소 소장 김명숙동무이다.

가장 영예로운 초소를 지켜선 금지

교원혁명가, 녀성일군... 그녀에게는 교향악 무산군에서 수많은 구호문헌들이 발굴되고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교향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의 내용을 묻곤 하였는데 그는 대답할수 없는것이 송구스러웠다. 그러면서도 항일의 빛나는 령사가 아로 새겨진 성스러운 땅에서 나서자만 금지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충정의 가풍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가 이어져오게되는 악산혁명사적지에는 3대를 이어오며 혁명사적초소를 지켜오는 가정이 있다.

그들이 바로 악산혁명사적지관리원 합동실동무의 가정이다.

수십년전 악산혁명사적지건설에 참가했던 합동실동무의 아버지는 건설공사가 끝

엔제나 이 글밭에서 하루사업을 총화짓곤 하였다. 그때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심심산골의 수훈한 농가에서 펼쳐주신 황금산의 새 역사를 자자손손 이어가며 길이전해가려는 각오와 의지가 김명숙동무의 가슴속에 품어넣었다.

바로 이런 불같은 충정을 간직하였기에 김명숙동무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한민택한 인생길을 변함없이 걸어올수 있었던 것이다.

교향에서 새겨진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상선전의 전초병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오미만동무는 무산혁명사적관 강사로 자원하였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날의 금지를 안고 초소를 지켜가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정의 마음도, 교향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모두 깰수없는 것이야말로 한생토록 지켜야 할 가장 영예로운 초소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신향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살기

락랑구역 충성고급중학교의 교원, 학생들

안고 백두산으로 걸었던 걸이 나섰던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답사길이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속에 행복하게만 흘러가던 학창시절 더구나 예순초세할등으로 계획도 없었던 여행이 해 여름방학을 빼지던 여름과 슬픔속에 보내게 될줄 누가 알았으랴. 슬픔속에서 학생들은 일떠세웠다.

백두산으로 가자! 하지만 답사길은 순탄치 않았다. 여름철답사도 그랬지만 겨울철답사도 어려웠다. 막 말나무도 얼어붙었다는 백두의 갈바탕은 10대의 나이인 그들이 오히려 걸을 여지가 없었다. 그때마다 답사대오에서 이런 해직이 흘러나왔다.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자!》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수 없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찬란 인생관, 불굴의 혁명신념을 기둥마냥 익세게 심어주었다.

백두산을 찾을 때마다 학생들은 물라보게 성장했다. 그들의 가슴속에 백두의 넓과 함께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지로 그려냈다. 백두의 갈바탕을 배에 새기고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졸업생들이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협동대, 대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혁신과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그들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신산대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난 한드레벨의 존손신동원 정철실동무도 있고 2015년 아시아청소년스포츠선수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친 미더운 체육인도 있다.

김해수, 권현정, 김정옥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은 조국보위초소에 선 제자들이 편지마대에 백두산에 올랐던 중학생들의 추억을 영원히 잊지 못할것 같다. 이 이야기를 자주 쓴다고 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감회를 담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깊이 새겨주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언제나 마음을 잊고 사는 락랑구역 충성고급중학교의 교원,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것을 새겨주었다. 조국의 미래는 바로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온다는 것을 본사기자 김신향

뜨거운 인사속에 흐르는 순결한 마음

금천혁명사적지답사숙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한 지향이 깃들어있다.

매 호실과 부도에 걸려있는 5대교양편물들이며 텔레비전과 목회기를 비롯한 문화기재들이며, 답사자들의 투정할 수백그루의 나무도 심고 온실과 축사도 새로 꾸며준 답사자들에게 정을 기울여온 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답사자들의 가슴속에 영광의 땅의 한부분으로 간직될수 있게 꾸려보려는 마음이 있었기때문에 물음앞에 자기들을 세워보지 않을수 없었다.

답사자들의 숙영기간은 불과 2박3일, 사람의 한생애에서 그야말로 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마음속에 받들어 답사자들의 혁명신념들의 숭고한 넋이 어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새겨넣었다.

답사자들이 의의있는 나눔을 보내고 이쪽 종업원들과 뜨거운 인사를 나누며 혁명사적지를 떠나갔다. 그 인사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고 있는 영광의 땅, 오늘도 얼어붙은 눈으로 영생하며 우리 인민을 애국투쟁에 불려일으키는 영웅의 교향에서 받아안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더 많은 일군을 해갈 줄은 맹세가 담겨있는것이다.

바로 이런 뜨거운 의의심에

발려 배주장과 탁구장 등 체육 및 문화 시설을 훌륭히 갖춘 휴양소가 새겨져 구겨져 되었다.

지난해 여름 어느날 저녁 문덕군에서 온 고급중학교학생들은 김이 문물 모으는 첫물과 강변을 마주하게 되었다. 영웅의 교향에 찾아온 답사자들에게 첫물과 강변을 맞이하기 위해 종업원들이 삼복무더위속에서 수습리길을 다녀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학생들은 얼마나 감동이 있었나.

답사자들의 숙영기간은 불과 2박3일, 사람의 한생애에서 그야말로 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마음속에 받들어 답사자들의 혁명신념들의 숭고한 넋이 어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새겨넣었다.

답사자들이 의의있는 나눔을 보내고 이쪽 종업원들과 뜨거운 인사를 나누며 혁명사적지를 떠나갔다. 그 인사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고 있는 영광의 땅, 오늘도 얼어붙은 눈으로 영생하며 우리 인민을 애국투쟁에 불려일으키는 영웅의 교향에서 받아안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더 많은 일군을 해갈 줄은 맹세가 담겨있는것이다.

바로 이런 뜨거운 의의심에

평양국제건강 및 가정용 의리기구부품 과학기술 전시회 개막

지난 22일에 개막되었던 평양국제건강 및 가정용 의리기구부품 과학기술 전시회가 폐막되었다.

전시회는 건강제품 및 가정용 의리기구개발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교과를 통하여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고 의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보건성 건강합작회사, 학봉약품연구소, 조선의리기구회사, 정성제약종합공장, 평천교과약공장, 치과위생용품공장, 함경남도인민병원과 로씨야, 중국, 오스트랄리아 등이 모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에서 출품한 제품들이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기간 《고려생명수발전기》와 한원수, 산화수, 《니코린산상고》, 《아미-공영양교과》, 《줄기세포치료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공호흡기》, 《어린이 질병 예방관리 및 그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목으로 기술논문회가 진행되었다.

개막식이 26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최정호 과학기술전당 총장, 김형훈 보건성 부총장, 보건부민원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성과를 받은 단체들에 상장과 증서가 수여되었다.

수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공원 훌륭히 건설

경치좋은 편동동지역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새로 훌륭히 건설되었다.

최근 1만 2천㎡에 달하는 면적에 교통안전교양관과 야외교통안전실습장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교통안전교육을 충분히 줄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자체에 갖추어진 어린이교통공원은 만리마린길에 펼쳐져서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떠세운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뚫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더 영리한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편동동지역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일떠세울 때는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서성구역과 평양시인민보안국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공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할 대담하고 용이 큰 목표를 세웠다.

시당위원회는 조직사업에 따라 서성구역당위원회에서는 건설지휘부를 능력있는 일군들

조선로동당대표단 몰도바공화국사회주의자당 창건 2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몰도바공화국사회주의자당 창건 2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2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영철



스웨리에정부 특사 우리

스웨리에정부 특사인 겐트 볼프 마그누스 헤슈테드 국회의원과 일행이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특사는 체류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나라 방문

문제를 비롯한 깊은 의견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조선반도정세격화와 우리의 자위적억제력강화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의 산물이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났다

교도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조영호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

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났다.

【조선중앙통신】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린다

압록강체육단, 해불체육단 축구팀, 평성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이룩된 자랑스러운 성과를 두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오늘의 벽한 만리마시는 체육강국건설에서도 비약을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강국

건설의 선봉에서 기세롭게 나아가는 선수자집단체들이 있다. 체육부에서 전향단위의 영예를 지닌 압록강체육단, 해불체육단 축구팀, 평성시청소년체육학교가 바로 그러하다.

최근 몇해사이래 더우기 만리마신자집단체를 향한 올레의 총돌격전선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이룩한 이 단원들의 성과의 요인은 무엇이며 오늘날 전국의 체육교수훈련단위들이 따라배워 할 투쟁기풍은 어떤것인가.

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김중이선수가 불과 한달 사이에 종전의 속소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새 건물에 들어서서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만리마시의 요구에 맞게 놀라운 속도로 번뇌되는 체육단의 물결은 전투분위기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비약의 열풍, 혁신의 열풍이 선수들의 훈련기세를 얼마나 높여주었는가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체육단책임인 김중이선생은 김정일동무는 자기 사업의 첫 시작으로 체육과학연구사, 의료연구사들과 함께 식당을 돌아보았다.

그때 책임인 김중이선생은 체육단전투가 빠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에게 있어 체육단전투는 자기 사업의 첫 시작으로 체육과학연구사, 의료연구사들과 함께 식당을 돌아보았다.

《경에 하는 선수들의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은 우리 해불팀의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그 어느 선수를 만나보아도 정에하는 선수님께서 안겨주시는 믿음이 팀의 활력이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과학적인 교수훈련조직과 지도도 바로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열정의 산물이다.

《선수들의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은 우리 해불팀의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그 어느 선수를 만나보아도 정에하는 선수님께서 안겨주시는 믿음이 팀의 활력이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과학적인 교수훈련조직과 지도도 바로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열정의 산물이다.

선수들의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은 우리 해불팀의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그 어느 선수를 만나보아도 정에하는 선수님께서 안겨주시는 믿음이 팀의 활력이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과학적인 교수훈련조직과 지도도 바로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열정의 산물이다.

《선수들의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은 우리 해불팀의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그 어느 선수를 만나보아도 정에하는 선수님께서 안겨주시는 믿음이 팀의 활력이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과학적인 교수훈련조직과 지도도 바로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열정의 산물이다.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압록강체육단이 확실히 달라졌다.

번뜻하게 변모된 체육단의 새로운 모습도 훌륭하지만 선수, 감독, 일꾼들의 정신상태도 예전과는 다르다. 훈련장에 가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훈련에 여념이 없는 선수들의 불같은 열의가 차넘치고 현대체육과학기술의 세계를 정복해가는 감독, 연구사들의 뜨거운 승결도 느껴진다. 그러다 하면 훈련조건개선과 후방보장사업을 위해 발이 앞도록 뛰어다니는 일꾼들의 모습도 보인다.

누구에게라도 그에 대해 물어보면 《우리가 명명받은 전사자가 아닙니까.》 라는 한복소리로 대답한다.

참으로 의미깊은 말이다. 체육단에서 배출한 우리 나라의 첫 인민체육인 신금단, 체육부문의 첫 공화국영웅 정성우, 2중올림픽국제수상자 김일그리고 라운심, 엄용철동무들과 같은 세 세대 체육인들도 훈련장면을 당의 전투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흘려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낸단 당의 미더운 체육선사들이었다.

올해 체육단이 이룩한 경기성과는 또 얼마나 좋은가.

지난해의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 우승급 1개와 금메달 21개를 포함한 78개의 메달을 경이한데 비해 올해에는 우승급 4개, 금메달 22개, 은메달 46개를 포함한 103개의 메달 달성.

하다면 이러한 성과를 이룩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부터 70일전투에 진입한 체육단앞에는 방해하면서 조 중요한 전투과제가 나왔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직되었으며 체육단들로부터 면 현상 조 중요한 장군님을 모시었던 압록강체육단을 병도업적단위단계 전격적인 반보기로 꾸리자.

인민보안성의 책임일꾼들은 낫과 반이 따로 없이 물결은 개전현장에 수시로 나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해결해주어 건설속도를 최대 높여주어 줄 것이 전투명령은 철야전투를 앞가차게 벌였다.

《선수들이 파죽의 훈련분투를 이겨내게 하자면 쉽사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금메달정령은 우리 모두가 심장으로 더욱 깊이 새겨안아야 할 당의 전투명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우리 축구부대에 혜성처럼 나타나 활력이 넘치는 힘으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해불팀!

오늘의 해불팀은 그대의 선수들이 거나 없었고 대부분 선진선수들이 합쳐져있었지만 각팀의 선수는 확고히 고수되고 있다.

나라의 축구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꺼지지 않는 《해불》이

이렇게 후방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은 더욱 높아지고 그것은 자랑스런 경기과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다.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전사, 돌격전에 나선 병사의 자제로 당의 체육방침을 결사관철해나 가며 만리마신자집단체를 향한 전진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

이렇게 후방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은 더욱 높아지고 그것은 자랑스런 경기과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다.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전사, 돌격전에 나선 병사의 자제로 당의 체육방침을 결사관철해나 가며 만리마신자집단체를 향한 전진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

이렇게 후방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은 더욱 높아지고 그것은 자랑스런 경기과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다.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전사, 돌격전에 나선 병사의 자제로 당의 체육방침을 결사관철해나 가며 만리마신자집단체를 향한 전진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

이렇게 후방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은 더욱 높아지고 그것은 자랑스런 경기과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다.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전사, 돌격전에 나선 병사의 자제로 당의 체육방침을 결사관철해나 가며 만리마신자집단체를 향한 전진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

이렇게 후방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은 더욱 높아지고 그것은 자랑스런 경기과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다.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전사, 돌격전에 나선 병사의 자제로 당의 체육방침을 결사관철해나 가며 만리마신자집단체를 향한 전진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



— 압록강체육단에서 — — 해불체육단 축구팀 — — 평성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

당의 국도건설구상을 결사관철한 신념의 강자들

마천령굴 건설 돌격대원들의 투쟁

수수천년 잠자던 함경남도 화진굴도사이의 함산준령의 허리를 뚫고 수천m의 마천령굴이 시원하게 뚫어졌습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불굴의 힘의 원천 - 철의 신념

령이 나서 구름과 맞닿는것 같다는 마천령의 앞면을 깨뜨리며 착공의 발파소리가 울릴 때로부터 완공의 그날까지 10여 년이 흘렀다. 하지만 마천령굴건설이 완공될 때로부터 어렵달이 지난 오늘날까지 돌격대원들이 어떻게 굴을 뚫으며 수십 만m의 흙과 암반을 처리하고 대로를 열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굴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마천령기적》이라고 한다.

하디면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 수천m의 굴을 뚫고 오랜 세월 물려온 험한 경경, 안개도 쉬여넘는 수백급의 평지에 차반 뚫을 내리었는가.

함경북도마천령굴건설돌격대 정치부장이던 김철호동무는 공사의 나날들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적관철에서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는 철의 신념이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할 한 불굴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분투가 아니라 건설경도였다. 이따금 지역지장의 정신으로 무조건 당에서 손바닥을 결사관철해야 하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디 한뜻으로 뿔뚝이 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용 용감함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며 기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의 초강대강변을 이끌어 가는 그처럼 바닷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걸쳐 함경남도 화진굴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함경북도에서 마천령굴공사와도 다르게 끝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교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